

보도일시	2022. 10. 24.(월요일)부터		사진	×	영상	×	매수	1
담당부서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본부장	이강진 (063-280-7141)					
		담당자	조원지 (063-280-7194)					

전라북도 농촌의 관계인구에 주목하자!

“관계인구를 활용한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인구 활용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구축방안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를 통해 ‘관계인구를 활용한 전북 농촌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21년 6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라북도는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되었고,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기준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전북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촌관광, 체험, 도농교류, 귀농귀촌 등과 같이 농촌과 관계를 맺는 도시민인 ‘관계인구’에 주목하여, 2021년 ‘관계인구’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관계인구’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이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방문하거나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라북도는 관계인구정책 방향으로 ‘농촌에서 도시·도시민까지 확대하여 도농융합 상생문명에 대응’, ‘단순방문에서 관계형성, 관심방문·지역인재로 관계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한 지역홍보, 관심도 제고,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설정하고, 자매결연, 가족과 함께 농촌살이,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생생마을 청년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관계인구 확보에 중점을 둔 전라북도 관계인구정책을 도시민의 지역 관심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 1단계 : ‘관계 형성(도농교류, 체험, 관광 등을 통해 전북 농촌을 방문하여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관계인구가 발생하는 단계)’
- * 2단계 : ‘관계 성장(단순 방문 이상의 활동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하며, 지역과 관련된 개별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 3단계 : ‘관계 활성화(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 공동체조직 활동 참여 등으로 지역 인적자원 또는 잠재적 정주민으로 성장하는 단계)’ .

도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대안적인 삶 추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전북 농촌에 관심과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 마을에서 일과 놀이·관광·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in 전북’, 농촌 삶의 질 증진 관련 도시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북 이노베이션 스페이스’ 등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조원지 연구위원은 제안하였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농촌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관계인구는 전북 농촌의 가치와 문화를 도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도시민과 전북 농촌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계인구 증가는 전북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향후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증가를 의미한다. 전북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관계인구가 증가한다면, 전북 농촌은 도시민에게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